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론



이 복음서를 쓴 목적(요한 20,31 참조)

얼마 전 두 명의 재벌이 뇌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고등법원(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면면은 이름만 대면 아하 하고 알 만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회장직을 물려받기가 부담스러운지(무슨 북한의 세습체제도 아니고...) 부회장의 직함으로 사실상 그룹의 총수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몇 해 전 형과 아버지와 그룹 총수가 되기 위해 이천투구 싸움판을 벌렸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룹 총수입니다. 이들은 보통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하지 않고 다발로 써도 다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나봅니다. 이들의 실형 사유 중 가장 무거운 것이 뇌물죄였으니 말입니다.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고 이권을 챙기거나 기업지배구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도 돈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고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이천투구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임에도 이제는 돈이 삶의 목적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은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 친지, 이웃, 동료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든, 그 사람이 신앙인이건 아니건 누구라도 돈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돈은 하느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맘몬이 하느님을 대신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문을 걸어놓고 움츠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용기와 희망을 복돋워 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요한 20,21-22) 그리고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던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 부활 체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만져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의 인사와 같은 인사말을 하고 토마스에게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신앙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요한 20,26-29 참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 뒤에 이 책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서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20,30-31) 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일까요?(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토마스나 같은 불신앙에 젖어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인간의 나약한 마음과 그 마음에 파고드는 불안과 유혹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나약함, 토마스나 같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믿음에 대해 이 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징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개신교 신앙인이었던 장로출신 전직 대통령, 또 가톨릭, 개신교, 불교에서 세례와 수계를 받았고 샤머니즘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범 종교인인 전직 대통령... 그들은 돈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아야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벌어진 사단입니다. 돈이 잠시의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을 추구하면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 사랑과 나눔, 섬김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릴 것이냐?

교회는 참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봉사자가 되어야 하고, 신앙인은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송현동 본당 배인호 베드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를 다시금 생각하고 기리는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이 사건은 곧 우리들 또한 부활시키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느님의 평화를 전하시는 주님과 함께,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25번 ‘사랑의 하느님’

본기도

†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도행전 4장 32절-35절

안 내 :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묵 상 :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우선시 되고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젖어있는 이 세대가 지향해야 할 삶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2독서 : 요한 1서 5장 1절-6절

안 내 :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묵 상 :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으뜸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 넘고도 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20장 19절-31절

강 론 : ‘이 복음서를 쓴 목적(요한 20,31 참조)’(1-2쪽)

예물준비성가 :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 198번 '성체 안에 계신 주님'

영성체 후 묵상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느끼며 성장해 왔습니다.
접해보지 않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이기란,
늘 확인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침묵>

믿음은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만큼 믿음 또한 깊어집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붙여넣어주신 하느님의 생명, 숨결,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느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침묵>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하여
부와 명예와 권력을 넘어서는
공동선을 위한 사랑의 세상이 되어야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은 바로
하느님 나라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세상,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를 이 터에서 이룩하며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1번 '찬미 노래 드리자'

※ 공소사목 성금

신현봉신부님	200,000원	김득순님	10,000원
--------	----------	------	---------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01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2018년 열린 성경 강좌 2

- 일시 : 4월 9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교구 사제연수

- 일시 : 4월 16일(월) 14:30 - 18일(화)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성무일도, 세면도구

■ 2018년 안동교구 성소주일 행사

- 주제 : “내가 너와 함께 있다.”(예레 1.8)
- 일시 : 4월 22일(주일) 09:30 - 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초·중·고·대학생 및 청년들
- 준비물 : 미사준비, 점심도시락, 돗자리, 식수, 명찰(달고 오기)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4월 8일(부활 제2주일) : 태화동 본당
- 4월 15일(부활 제3주일) : 신기동 본당 (견진성사)
- 4월 29일(부활 제5주일) : 개운동 본당 (견진성사)

■ 우리농 소비자회원 강좌

- 일시 : 4월 9일(월) 10:00
- 내용 :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무료)
- 장소 : 나섬식생활교육원(목성동성당 밑)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일시 : 4월 27일(금) 19:00 - 29일(주일)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미혼남녀, 사제, 수도자, 신혼부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약간의 간식, 미사준비
- 참가비 : 90,000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탈라(010-5185-7867)

■ 성령쇄신 전국대회

- 일시 : 4월 14일(토) 9:00 - 18:00
- 장소 : 장충체육관
- 강사 : 안토니 파란키말릴 신부(인도)
- 참가문의 : 성령봉사회(010-8964-0958)

■ 꾸르실료 월레미사

- 일시 : 4월 16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교구청 ‘성모의 밤’

- 일시 : 5월 1일(화) 19:00 - 21:30
- 장소 : 교구청 잔디 광장 및 성모동산
- 주최·주관 : 안동교구 여성연합회
- 대상 : 누구나 참석 가능
- 구성 : 목주기도, 미사, 작은 음악회
- 준비물 : 깔개, 겹옷, 미사 준비
- 기도지향 : 교구 50주년을 맞이한 안동 교구를 위하여
- 방법 : 미사, 목주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본당별로 성모님께 봉헌(본당 여성 단체 대표 4월 30일까지 수합)

■ 생명환경연대 봄철 생태기행

- 일시 : 5월 12일(토)
- 장소 : 백두대간 낙동강 세평 비경길 (송부역 - 분천역 구간)
- 대상 :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회원 및 함께 걷고 싶은 분
- 문의 : 안동 마명락 010-6300-1711
북부 정장훈 010-3827-2275
문경 안장수 010-8361-2087
상주 윤병권 010-7488-7564
- 참가비 : 1인 20,000원(중식은 개인 준비)

■ 2018년 2차 가나혼인강좌 (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19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2만원(1인 1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5일(화)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청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7장

자녀 교육의 강화

격려인 훈육의 가치

268.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자녀가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가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다른 이에게 입힌 고통을 뉘우치는 능력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벌은 이러한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용서를 청하고 다른 이에게 입힌 피해를 바로잡도록 확실히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육 과정이 인격적 자유의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자녀는 자신이 한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또한 교육 과정의 요구 사항을 견뎌 낸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269. 또한 자녀의 노력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인내심으로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낄 때 훈육은 격려가 됩니다. 사랑으로 훈육을 받는 자녀는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자기 부모를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부모가 흠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알고 개선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신이 화가 나도 자제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자녀는 훈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결코 애물단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일부 잘못된 행동은 특정한 연령대에 전형적인 나약함과 한계에 관련된다는 것을 어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꾸짖는 태도는 자녀 행동의 심각성의 경중을 가리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녀의

낙담과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마십시오”(에페 6,4; 참조: 콜로 3,21).

270. 훈육이 자녀의 바람을 꺾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나은 발전에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육과 자녀의 내적 활기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훈육이 자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건설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녀의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차원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해로운 두 극단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한 극단은 모든 것에서 자녀의 바람에만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는 자신의 책임보다는 권리만을 생각하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자녀가 자신의 존엄, 고유한 정체성, 권리를 의식하지 못하며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는 자신의 의무와 다른 사람들의 바람까지 실현하여야 한다는 책임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현실주의

271. 도덕 교육에는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분노나 순전히 억지로 하는 행위를 야기하지 않는 수준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이해되고 수용되며 존중될 수 있는 작은 실천 단계들의 제시와 적절한 희생이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때에 자녀는 우리의 권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아마도 선행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272. 자녀가 방치, 실망, 애정 결핍, 부정적인 부모 모습을 체험하게 되면 도덕 교육은 때로는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윤리적 가치의 교육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왜곡된 모습이나 어른들의 단점들이 반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이들이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곧 가치들은 일부 매우 모범적인 사람들만이 잘 실천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도 불완전하게나마 다양한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거부는 자기의 부정적 경험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에 도움을 주어 그들이 다른 이들과 사회를 이해하고 화해를 이루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부활선물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한 사제가 쓴 책을 읽었다. 46판(B6)크기에 200쪽 분량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런데도 읽기가 쉽지 않았다. 울컥 울컥 솟구치는 감정 때문이었다. 가슴이 먹먹해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읽다가 접어두고 다시 읽기를 반복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소소한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라고 저자는 겸손해 하지만 그래서 더 감동적이다. 바로 “성당지기 이야기”다.

그중에서도 ‘고해소에서 야단맞은 신부’ 이야기는 특별했다. 새내기 신부시절 저자는 고해성사를 까다롭게 주기로 소문이 났다고 한다. 어느 형제가 성사를 어떻게 보는 줄도 모르고 흐느끼기만 하자 잘못된 자세에 대해 습관처럼 강한 훈계를 했다. 20년 만에 성당에 나온 그 형제는 모르는 사람에게 야단만 치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고 하소연 한다. 고해소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줄 아느냐고, 신부님은 죄를 짓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그 일을 겪은 이후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러 오는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내 이야기 같아 가슴이 아려왔다. 나도 오랜 기간 성당을 쉬었다. 냉담 중에 성사를 볼 기회가 한 번 있었다. 친한 선배에게 이끌려 부활 판공성사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교구에서 엄하기로 소문난 신부님을 만났다. 그날 나는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성사를 볼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몹시 당황스러웠다. 내심 냉담을 풀고 성당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아주기를 바랐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다. 쫓겨나듯 고해소를 나오는데 천근 납덩이가 가슴을 눌렀다. 고해성사 후 난 다시 5년이란 시간을 방황해야만 했다.

제대로 고해성사를 볼 준비 없이 간 것은 맞다.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도 사실이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만 하고 있으니 신부님은 화가 났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부른 화였지만 신부님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회두를 권했던 선배나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내 마음만 앞세워 무작정 고해소로 데려갈 일이 아니었다. 준비도 없이 따라 나설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오랫동안 고해성사는 내게 두려운 짐이 되었다. 쉽게 고해소에 들어가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스무 명 가까운 대자가 생겼다. 그중의 몇 사람이 냉담중이다. 나는 회두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마음의 준비부터 시킨다. 그리고 반드시 본당 신부님에게 성사를 보도록 한다. 미리 신부님께 설명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나처럼 준비 없이 고해소에 들어갔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배려에서다.

사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도 ‘성당지기 이야기’ 때문이었다. 고해소에 들어가는 사제도 죄 사함의 직무를 수행하는 무게에 긴장한다고 했다. 고해성사를 마치고 신자들이 기도하듯 사제 또한 기도시간을 가진다고 했다. 사제에게도 고해성사가 어렵고 부담된다고 했다. 어쩌면 그때 신부님은 나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해성사의 아픈 기억이 도리어 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도 했다. 그제야 가슴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바라봄에는 법칙이 있다고 한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니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는 고마운 부활선물이다.